

科學 工業 經濟立國에의 主役으로

科學 學術團體 活動造成에 促進劑

當面한 懸案 하나씩 풀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지난 3月 閔寬植박사가 第5代會長으로 就任함으로써 科總을 비롯하여 科學技術界에 새로운 氣風과 活氣찬 潮流를 밀고 왔다.

우리나라 科學技術者의 總 本產으로서 10餘年의 位置를 지켜온 科總이 그간의 靜觀을 깨고 元老들이 마련한 土臺위에 새로히 基礎를 닦고 雄壯한 設計를 펼쳐나감으로써 “비전”이 現實로 옮겨지고 있다.

閔會長이 就任辭에서 밝힌대로 우리 科學技術界가 當面한 懸案問題解決에 衆知를 모으고…… 科學技術處를 비롯하여 行政部處에 그야말로 말(馬)과 같이 뛰어다니며 하나씩 하나씩 解決해 가고 있다. 특히 學會와 團體들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된 與件을 마련해 주려고 땀흘린 흔적이 科總 歷史의 새로운 章을 채워주고 있다.

國力伸長에 寄與한 陰地の 奉仕者 正當한 認識과 待遇를 力說

第1次 78年度 臨時總會를 3月 14日 科學技術會館 小會議室에서 열고 開會辭에서 閔會長은 『科學者와 技術者가 나라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社會의 地位나 認識에 있어서 正當한 待遇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問題들을 解決하는 것이 會長職을 맡으면서 自身이 해야 할 일』이며 科學徒出身인 自身이 이제까지 科學界나 科學徒를 위해서 일할 機會를 갖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속죄의 기회로 생각하여, 있는 힘껏 우리나라 科學界의 대변인으로서 役割을 다하겠다는 決意를 보인바 있다. 그러나 『그같은 일들은 개인의 힘으로는 이루어질수 없고 科總에 가

입되어 있는 학회나 團體가 힘을 합쳤을 때만 地球 덩어리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

科學의 날 18名 勳章褒賞

大統領表彰 5名 總理表彰 3名

4月 21日 科學의 날, 그간 科總을 이끌어 온 金允基박사의 17명에게 褒賞이 있었고 8名의 과학기술인이 표창을 받았다. 科學의 날 科總은 評議會(學會團體長으로 構成됨)를 갖고 科學技術界의 當面한 懸案問題를 協議함으로 그늘에 시들던 이들에게 希望이 소생하게 되었다. 드디어 衆知는 모아졌고 科總政策研究委員會에 회부된 문제들이 高位層에 建議되는 한편 各部處 議會에 說明됨으로 새로운 반응이 일고, 科學技術人의 움직임이 對話의 門을 열기 시작하였다.

盛況이룬 綜合學術大會

國內外 科學技術者 紐帶強化

科總은 今年 처음으로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를 名實共히 主權主管하였다. 그간 베차레에 걸쳐 大會가 열렸으나 이번 제 5次大會는 前例없는 規模로 3,000餘名이 參加한 國際水準을 웃도는 學術大會라는 것이 國外科學者들의 異口同聲이었다. 大會運營이 組織적이었으며 빈틈없는 進행에 科總의 能力을 처음보인것이다.

예년에 보기드문 經濟產業界의 關心과 協助는 祖國의 總和意識 以前에 產學協同의 合理的이고 圓단한 구현을 보여주었다 하겠다.

앞으로 우리의 産業이 頭腦集約적이고 技術集約, 資源節約의 이어야 國際社會競爭에서 竝立해 갈수 있다는 點을 考慮할 때 이번 學術大會가 갖는 意義는 자못 큰 것이었다. 産業視察에서 在外科學者들의 눈에 비쳐진 祖國의 産業經濟發展 相은 韓民族의 矜持를 심어주기에 족했고 특히 國內誘致를 위한 懇談會에서 거둔 意思交換은 高級科學技術人力 誘致의 方法에 새로운 길을 트게했다. 永久誘致아닌 短期誘致로 技術學術을 골라 들이는데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醫學用語集 1,000부 發刊配布

科學技術用語辭典 편찬착수

정밀성을 존중하는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用語의 精確성을 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래어 그대로의 기술용어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기술용어가 외래어든 번역되어진 용어이든 할것없이 精確히 읽혀지고 쓰여져야 한다. 科總은 이를 위해 科學技術用語 統一標準化事業을 해왔다.

지난 9월 두번째로 醫學用語 133,000個를 標準化하여(4×6배판 1,349面) 1,000부를 발간, 全國에 걸쳐 學會, 教育機關, 醫療機關, 圖書館等에 무상으로 高루 配布하였다(이사업을 위해 연 암문화 재단의 지원이 컸음을 밝혀둔다).

繼續 科總은 이들 用語의 뜻을 풀이한 과학기술 용어사전” 편찬작업을 하고 있다. 금년 제 1차로 物理, 化學, 數學 용어 7,000용어를 풀이했으며 앞으로 5개년 계획 사업이 추진된다.

全國低所得마을 一掃에 主力

所得增大에 技術奉仕로 支援되

科總은 새마을 技術奉仕團(中央會長 閔寬植)을 通해 全國 9個道에서 1,600餘團員(主로 大學教授)이 全國民의 科學化운동의 一環으로 科學營農 所得增大 環境改善에 技術支援을 순수봉사로 떠나가고 있다. masscom을 통한 기술지도, 서신지도 현지출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재

를 발간보급하고 있다. 300餘 마을과 科學技術者間에 結연을 맺어 소득을 높이고 있으며, 매년 우수지도사제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단기영농기술학교 교육을 통해 年 2회 영농지도자를 育成하고 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內무부 요청을 받아 전국 215개 저소득마을(年間戶當所得 110만원이하)과 기술지도結연을 전개, 현재 77개마을과 結연을 마쳤고 73개마을은 結연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65개마을도 79년초에 結연함으로써 집중적인 영농기술지도 및 기타 지도를 실시, 高루 잘사는 농어촌을 목표로 저소득마을 一掃에 主力하게 된다. 그리고 金년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전북도단 윤순기단원(전북농대교수)은 새마을훈장 근면장을 받았으며, 충북도단 육창수 단원(충북대교수)이 새마을훈장 노력장을 받는등 과학기술인의 음지에서 的 봉사 가 차츰 사회적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學術活動造成 支援 擴大

海外 訓練 歸國者 動態調査

학회學術活動 造成은 國家經濟 發展과 科學立國工業立國의 基盤을 다지는 要諦가 되는 것으로서 보다 큰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金년 정부 지원 1,000만원을 받아 42개학회에 補助 學術活動을 促進시켰다. 科總은 79년도 지원을 몇배로 늘릴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해외훈련 귀국자 보고문(기술협력誌)을 발간했으며 귀국자의 動態를 파악, 技術人力 管理體系化에 한모퉁이를 채웠다.

國內 唯一의 科學技術綜合誌

과학과기술 36,000部 發刊配布

과학기술에 관한 政策, 資料, 論壇, 技術情報 産業技術 學會活動 등 科學技術界의 有機化의 媒體로서 對話의 廣場을 이루고 있는 “과학과 기술이 매월 정기간행되었고(年 36,000부) 한편 科學技術界先驅者 錄音은 今年으로 32名의 녹음을 모두 마쳤다. 따라서 明년에는 과학기술 30年史를 편찬하게 되었다.